

여기를 보십시오

News

습관성 유산 유전자 규명
국내 연구팀에 의해 습관성 유산 유전자가 규명돼 불임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6면

MO World Net

WHO 전통의학규범집 발간
범세계적인 전통의학과 약물요법 등의 모든 내용이 총괄된 전통의학규범집이 WHO에 의해 나왔다. 9면

Domestic Report

고혈압치료 최신지견
고혈압 환자 약물치료의 최신지견에 대해 배증화 경희의대 순환기내과교수로부터 들어본다. 14·15면

Advertisement for SPAMON (Advanced Anti-spasmodic Agent) by HANIL PHARM CO., LTD.

의대정원 10% 감축 내년도 입시 반영
의학단체 발벗고 나섰다

의협등 7개 단체 교육부 전달

의대 정원 10% 감축을 내년도 입시에 관철 시키기위해 모든 의학 단체가 하나가 되어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 의학회, 기초의학협의회, 한국 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7개 의학단체들은 의발특위의 의대 정원 10% 감축 결정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

과잉현상이 극에 달해 의료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여건과 의료환경, 경제수준, 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시행해 나가야 하며 최근 의사인력 과잉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서둘러 의사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부터라

도 의료인력 적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은 지난 2000년 11월 정부와 의료계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결의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함은 물론 의사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 방안을 현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장수 기자 jsha@kimsonline.co.kr

김대통령 '분업 보완' 재확인
광복절 경축사서 "문제점 개선하며 발전"



김대중 대통령은 현행 의약분업제도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장대환 총리서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의약분업을 착실히 발전시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남은 임기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보살피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찾아가는 복지', '피부에 와

닿는 복지'의 실천을 위해 내각을 독려하고,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치매병원과 노인 전문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분야를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근심사위원
의사등 545명 위촉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지난 14일 비상근심사위원 545명을 위촉했다. 이 중 중앙심사위원은 30개 분과위원회에 195명, 지역심사위원은 지역별로 9개 분과위원회에 350명이다.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 의약단체, 보험공단, 소비자단체, 심평원이사회 추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있는데 임기는 2004년 8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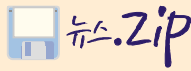
"교육부 실행의지 가져야"
의협, 미온적 태도에 이행 촉구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올해 신규로 등록된 의사가 3천1백61명에 이르고 신설의대가 배출하는 의사인력이 포함되는 2004년 이후에는 매년 3천3백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 인력은 국민소득 1만달러일 때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127명인 일본과 136명인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의사를 포함해 159명으로 월등히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현재 의과대학 1학년이 전문의로 활동하게 될 2015년경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212명 정도로 의사의

대한의사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의대 정원 10% 감축 결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지난 12일 의견조사라는 명목으로 각 해당대학교에 이의 찬반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정부에서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

대 정원 10% 감축 찬반여부 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약속한 의과대학 정원감축을 지체없이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 입장 발표에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 구성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이 위원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각 관련부처 장관은 물론 관련 학계인사 및 해당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책임있고 권위있는 위원회를 상주시켰다. 또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국민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계의 충정을 저버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비롯한 정부에 있다"며 교육부에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새 감시체계 적용 '전염병 통계연보' 발간

보건원은 2000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새로 구축된 전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전염병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2000년 8월부터 전염병 발생을 신속·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한 전자문서(Electronic Data Interchange) 보고방식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염병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발간된 것이다.

길병원 국제교류프로그램 '독의대생 참가'

가천의대 길병원은 최근 독일 훔볼트대, 합부르크의대 등 7개 대학 10명의 의대생들이 가천의대 길병원 국제협력센터(소장 임윤명 교수)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제교류 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천의대 임상실습 체험, 문화유적탐방,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성모병원 내시경실 증축 축복식 가져

가톨릭대 성모병원(원장 윤문수)은 최근 수면내시경 회복실과 새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내시경실 증축 축복식을 가졌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1974년 개설 이래 각종 내시경, 위장관 기능검사를 수행해 온 내시경실은 이번 증축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의대 암연구소 23일 학술대회

고려의대 암연구소(소장 김준서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는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의대 제3,4강의실에서 제 14차 암연구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토야마의대 타주히토 카사이 교수의 '일본에서의 폐암치료의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비롯, 장정순(경상대), 박윤규(고대의대), 김승복(아이디알코리아), 최용경(생명공학원), 김열홍(고대의대), 양범석(KIST), 서영준(서울대) 등이 강연한다.

서울의대 대학원 4개 전공 신설

서울의대 대학원이 최근 4개의 전공을 신설,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사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장내 5개 전공중 면역학, 분자유전체의학, 분자종양의학, 신경과학을 통과시켰다. 참여교수는 약 80여명이다. 이번 전공 신설로 대학원 전공은 기존 33개를 포함 모두 37개로 늘어났다. 이번 안건은 21일 주임교수회의, 23일 또는 30일 열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일병원, 환자·지역민 위한 음악회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원장 박봉수)은 오는 29일 병원 본관 앞 야외무대에서 일일환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02 FM콘서트 여름 추억' 공연 행사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일병원 음악동아리 FM(Feeling Music)과 그룹사운드 BARRO, 속명여대 음대생들의 피아노 3중주 등으로 진행된다.

전남대병원, 불우환자 돕기 미술작품 전시

전남대학교 병원은 최근 병원 1동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불우환자 돕기 미술작품 전시회 행사를 열었다. 지난 12일부터 3주간 진행될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명작가 작품 60여점이 선보이며, 판매매출 일부를 병원 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폐지·고시가제 촉구”

의협, 정부 약가정책 비판 공식입장 제시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의견 발표를 자제해 오던 의협이 최근 약가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보 약가 정책에 대한 설명서를 통해 건보 약가의 보상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패한 의사분업으로 야기

된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분업 실패로 초래되고 있는 약가 정책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효과가 입

증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약가 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 제도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로 전환,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정수기자**

jsa@kimsonline.co.kr

국공립병원도 별도지원 가능

공공성 강화·의료비 절감 사업시행 때

지방공사를 비롯한 국공립병원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부의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67개기관의 2002~200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서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공공 의료 시행계획 작성의 충실도가 뛰어난 22개 기관을 선정,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총 14억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중 지방공사 전안의료원은 천안시 보건소와 연계, 지역주민의 고혈압관리 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대구직신자병원

과 서울시립아동병원은 외국인 근로자 진료 및 검진,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검진 및 재활치료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인정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국·공립병원을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국공립병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회복, 강화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의대 원자력영향·역학 연구소

원전지역 역할 연구 주관

서울의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소장 안윤옥)가 '원전 주변 지역 역학조사 연구' 2002년도 3차년도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역학조사연구사업단(단장 이명철)이 수행해 왔지만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연구소가 협약을 맺어 진행하게 됐다. 연구비는 연간 11억4천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의대가 주관 기관으로 원자력위원회가 공동연구기관, 전남의대·경북의대·인

제의대·동국의대·건국의대·방사선보건연구원 등 6곳을 위탁연구기관으로 하여 협동 연구를 수행케 된다.

원전 주변지역 역학조사연구는 ▲원전 주변지역 암발생 위험도 평가의 코호트연구 ▲원전 중사자 암발생 위험도 평가의 코호트 연구 ▲국제암연구소 수행의 15개국 국제공동 연구 참여 ▲자연 방사능 고준위 가능 지역 주민과 비원전 방사능 중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이다.

의협 보험이사 박호진씨 임명



신상진 의협 회장은 박호진 충북 청주 박내과 의원장(50세·사진)을 보험이사에 최근 임명했다.

박호진이사는 충청북도 의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했고, 서울의대를 77년에 졸업했다.

박호진 보험이사는 김병철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와 함께 의료계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병원의 홈페이지... 1면서 계속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이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판단하게 될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분명 인쇄 매체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 개정은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광고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타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혼동되고 있다"고 실정을 밝히고 "의협 등에서 인증 사업을 통해 이를 검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터넷 시대 현실을 감안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하며 광고 허용 규정 8가지를 확대, 객관성과 신뢰성만 확보되면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과 최홍석 사무관은 이르면 내달초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일반 예고를 할 방침이며 광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법제정은 즉시 발생 할 지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 현실에 부합되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 범위를 기대해 허용 규정 8가지를 확대, 객관성과 신뢰성만 확보되면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MEDICAL Observer www.medicalobserver.co.kr
 구독료 연 60,000원

발행인 이승훈 편집인·주간·편집국장 노영수 저널사업본부장 남상우 인쇄인 김원섭
 창간 2001년 1월 8일 / 등록번호 문화 2105897 / 등록일자 2000년 10월 10일
 발행처 메디칼업저버 / 대표 이영택 / 광고대행 MedMedia Korea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프도빌딩 4층(우편번호 137-070) / ISSN 1608-5108
 편집국 직통 (02)522-7040 / 팩스 (02)522-4344 / E-mail mo@kimsonline.co.kr
 광고국 직통 (02)522-2663 / 구독 전화 (02)522-2930 / 팩스 (02)522-4344

자매사 : **KIMS Pharmacy** **MEDICAL PROG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의 기고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 섭취량 많으면 H.pylori 의한 발암 감소

H.pylori 감염은 위암위암인자이지만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으면 발암효과가 저하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H.pylori는 1994년 국제암연구소(LARC)가 위암 발암인자로 공표했으나 각 나라·연구자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 논란이 돼왔다.

따라서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안윤옥 교수팀(김대성)은 H.pylori 감염이 발암인자가 아니거나 제3의 요인에 의해 위암 발암 영향을 변경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비타민 C를 변조인자로 295명의 위암환자에 대한

개별·짝짓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pylori의 음성반응군에 비해 양성반응군은 1.71(신뢰구간 95%, 1.13-2.58)배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비타민 C는 발암여부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비타민 C에 대한 총화 분석 결과 C가 적을 경우 H.pylori 양성군은 음성군에 비해 4.68배(1.97-11.1)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타민 C가 많을 경우엔 H.pylori 양성군이 음성군에 비해 0.72배(0.32-1.6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교수는 "지금까

지 H.pylori 감염과 위암발병 위험간의 관련성에 대한 각종 역학적 소견이나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것은 H.pylori 감염 변조인자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번 연구가 'H.pylori와 위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6차 국제역학회(IEA), 세계역학학회(WCE)에서 구두 발표될 예정이다.

순종관 기자

ikson@kimsonline.co.kr

신장결석 예방치료제 특허 칼슘 응집 억제 단백질 발견

장성구 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팀

장성구 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팀(김성수, 하주현, 강인숙교수)이 최근 신장결석 예방치료제(결석 발생의 원인인 칼슘응집을 억제하는 단백질 규명) 성분을 발견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에 장교수팀이 발견한 물질은 소변내 탄닌-결합 렉틴 관련 세린 프로테아제-2란 물질로 일반적으로 간장에서 만들어지며 우리몸의 면역작용을 도와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장성구 교수는 이 단백질은 소변으로 배출되며 배출 시 신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특허를 받게 되었다면서 향후 이 단백질의 활성부위를 이용하여 신결석 예방치료 약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교수는 연구초기에 신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의외의 결과를 얻었다면서 현재 결석은 수술이나 쇄석술만이 시행되고 있어 신결석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석 예방약제가 개발된다면 결석환자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대정원감축 내년 시행논의

이상주 교육부장관·김일순 의발특위장 만나

교육부는 의대정원 10% 감축 방안을 일단 수용하고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상

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만나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 감축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이 건의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내년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내년시행이 안될 경우 의료계를 납득시켜야 한다는 점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초 1년 연기방안을 제안했지만 특위의 건의를 일단 수용하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경태씨 임명

정부는 13일자로 문경태씨(관리관)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임명했다.

문 실장은 지난 6월 26일 연금보험국장직에서 물러나 대기 중이었다.

문실장은 경남 사천출생으로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18회, 76년)에 합격한 후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학과 서기관, 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거쳐 93년 복지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과(97), 복지부연금보험국장을 역임했다.

'심방중격결손' 주제 GUCH심포지엄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9월 1일 개최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소장 서정분) 성인선천성심장질환 클리닉(GUCH : Grown-Up Congenital Heart 소아과 이흥재)은 오는 9월 1일 심방중격결손(ASD)을 주제로 한 제2회 GUCH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순환기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 관련분야 간호사 및 학생 등이 참석, 이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발표되는 연재 및 연자는 다음과 같다.

△Natural History of ASD (마재숙 전남의대 소아과) △Diagnostic Issues in Adults with

ASD(정남식 연세의대 순환기내과) △Clinical Profile of Adults with ASD in Korea(고재근 울산의대 소아과) △Dysrhythmia & Electrophysiologic Problems in ASD(김준수 성균관대의대 순환기내과) △Cryptogenic Stroke in Patients with PFO(정진상 성균관대의대 신경과) △Pulmonary Hypertension in ASD(노정일 서울의대 소아과) △Nursing Approach to Optimize Care in ASD(문주령 삼성서울병원 간호부) △Surgical Consideration in Adult ASD Indication, Option & Future(안혁 서울의대 흉부외과) △Catheter Intervention in ASD Indication, Option & Future(김성호 제주한라병원 소아과) △선천성 심장병환자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김동욱 대전대 간호학과) △기혼 선천성 심장병환자의 성생활과 삶의 질(윤미선 중앙대 간호대학원) △삼성병원 GUCH클리닉에서 진료한 사례(ASD 및 VSD & Marfan Syndrome, GUCH Database)

"밝은 세상 만들기 40년 보람"

인터뷰 김희수 김안과병원 이사장

"지난 1962년 김안과의원으로 출발한 뒤 지난 14일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40년이지만 질·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안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안과학계와 함께 밝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개원 40주년을 맞은 김희수 김안과병원 이사장은 조그만 안과의원에서 동양 최대규모의 전문병원이 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병원의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나라 안과학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간 외래환자가 30만명이 넘고 수술도 1만5천건에 이르고 있는 동안 최대 규모로 소개하고 명망·백내장·안성형·라식 등의 센터와 녹내장·소아·사시안과 등으로 세

분화시킨 덕에 보다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정성으로 진료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면서 365일 연중무휴 진료, 눈이 아픈 환자들은 언제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은 것과 병원의 전현직 직원 모두가 묵묵히 일해준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성장배경을 분석



친절하고 병 잡고치는 병원으로 중부권의 의료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건강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종우)은 14일 가진 개원 기념식에서 진료·연구·교육·봉사에서 우리나라 안과학계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김숙수 사무국장(20년), 김지형 마취과교수(15년), 김숙자 수술실 파트장(10년) 등 30명에게 장기근속상을, 이종선 사무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의대정원감축 논쟁이 뜨겁다! IT의료혁명

메디칼 업저버 발간
가격: 9,900원

구입문의: 전화 622-9100 / 팩스 622-4944
WWW.MEDICALBARVER.CO.KR

습관성 유산 원인 유전자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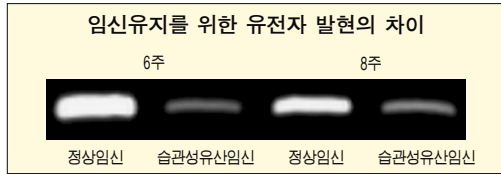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백광현교수팀 세계 최초로

불임 치료·예방에 획기적 전기 마련

국내 연구진이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다수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 습관성 유산의 발병 예측과 조기진단, 불임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 최근 2년간 습관성 유산 환자(48명)와 정상 임신여성(38명)의 유전자에 대해 옴모파 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 비교·분석 결과 습관성 유산에 관여하는 27개의 유전자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여성이 임신시기에 임신 유지를 위해 벗가지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습관성 유산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면역억제관련 유전자, 혈관형성관련 유전자, 태아 부착관련 유전자, 세포사관련 유전자들이 발현은 됐으나 정상 임



신 여성에 비해 발현 정도가 비교적 적거나 적거나 많이 발현돼 임신유지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습관성 유산은 임신 초 20주 이전에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유산되는 것으로 전체 임신부 중 유산을 경험하는 여성이 15%이며, 이중 33%에 해당하는 여성이 습관성 유산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성 유산은 현재까지 특정 유전자가 관여할 것이라는 추정 외에 예방법이나 치료방법이 없었으나, 백광현교수팀의 이번 연구결과로 습관성 유산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습관성 유산 관련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중에 있다"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을 물론 세포치료를 통한 조기치료를 통해 습관성 유산의 정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교수팀의 연구 논문은 최근 열린 미국 생식의학회와 유럽 생식발생학회에서 발표됐으며, Reproduction, Fertility and Development 저널 6월호에 게재됐다.

송병기 기자
bsong@kimsonline.co.kr

내시경 장기적출술 보편화

흉터적고 회복기간 단축 장점 갖춰

내시경을 이용, 흉터를 줄이면서 이식용장기를 적출해내는 수술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방법이 있어서도 점차 발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방법은 흉터크기의 축소와 회복기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으로 장기기증을 더욱 촉진시킬 것

으로 보여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이식팀 이성원 교수팀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내시경을 이용한 신장적출술 18례를 실시하고 이중 10례를 추적관찰한 결과 수술후 거부반응의 심도나 심각

도 등에 있어서 기존 방법에 의한 적출 및 이식성적과 차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존 적출 수술시 흉터 20cm보다 작은 6cm에 불과하고 입원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 수술법은 복부 2곳을 절개, 내시경과 한 손을 복강 속으로 넣어 내시경 영상과 손의 직접적인 촉감으로 신장을 적출하는 방법으로 주위 장기손상 방지나 지혈 등의 조작에 유리하다고 이교수는 지적했다.



가톨릭대 학술상이 교수에서 대학원생으로 수상대상이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수여됐다.

가톨릭의대 대학원 학술상 시상

수상대상 변경 후 첫 시행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은 지난 14일 대학원 강의실에서 28회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 대학원 학술상은 국제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는 23편의 논문이 응모돼 이를 심사한 결과 기초·생리학 최복희씨와 임상·내과학 김완옥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기초·병리학 신민선씨와 임상·임상병리학 임지향

씨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정규원 대학원장은 "수상자들이 우수한 논문으로 대학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상을 시작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해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학술상은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증진시켜 보다 훌륭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상대상을 교수에서 대학원생으로 변경 후 처음 시행하며 연 2회에 걸쳐 시상된다.

삼성서울병원 당뇨캠프 개최

21~24일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은 당뇨환자들이 참여하는 제6회 당뇨인캠프를 21~24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개최한다.

모두 85명의 성인 당뇨인이 참여하는 이 캠프는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이해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개발 △당뇨인 상호간 친밀감 조성 등 당뇨인들이 보다 활기차고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내분비내사내과 김광원 교수는 "당뇨인들이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평생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이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캠프의 의의를 설명했다.

MO 칼럼



서 흥 관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객원논설위원

올해 초 금연열풍이 불면서 뜻밖의 황재를 한 회사가 바로 금연보조제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대체제인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이 있으며 이밖에 지명도가 가장 높은 금연초가 있다.

비공식적인 보고이긴 하지만, 금연보조제 시장의 3분의 2를 금연초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금연초가 과연 금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흡시 유해한 성분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금연 전문가들도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은 광고에 의존해서 금연보조제로 금연초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금연초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1999년 8월 검찰은 '금연초'와 '금연환' 제조업자인 윤모씨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 등이 금연효과

년 7월 걸린형 금연보조제를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걸린형 금연보조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식의약품의 엄격한 독성검사를 거쳐도록 하였다.

2001년 6월 금연초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공식 제조허가를 받았다. 금연초는 이전에 만들어지던 방식을 달리해서 1998년 두중엽 등을 원료로 '담배처럼 피우면서 끊는' 금연보조제로 개발되었다.

그럼 이제 금연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금연초와 유사한 걸린형 금연보조제(herbal cigarettes)의 제조를 금지시켰다. 왜냐하면 걸린형 금연보조제가 사용자의 혈액 속의 일산화탄소를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김성원 교수가 심삼초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발생을 비교했는데 담배보다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금연초 효과 규명돼야

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없이 제조·판매 했으며 금연초를 피운 환자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등 인체유해 가능성이 크다면 7월 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금연초의 타르 발생량이 일반 담배의 6-7배에 달한다"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2000년 2월에는 금연보조제 '금연초'는 의약품이므로 이를 허가없이 파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금연초 제조업자 윤모씨와 이 제품 총판권자인 유모씨에게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벌금 3억5천만원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및 벌금 2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에서는 금연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2000

년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에서의 실험도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독성시험, 중금속 시험이어서, 장기간의 효과를 보아야 알 수 있는 독성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담배도 그 정도의 독성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금연초의 금연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은 금연 성공률을 약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연초는 엄밀한 대조군 연구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이다. 금연 전문가들의 인식은 placebo 효과 이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금연보조제를 금연 목적으로만 팔 생각이 있다면 일찍한 효과 관정이 있을 후에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대형건물 냉각탑수 철저 점검·소독 당부

최근 2개월간 전국 대형건물 3,149곳에 대한 냉방시설 오염도를 측정하는 보건원은 이들 중 114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분수대의 냉각탑수 점검

및 소독관리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건원은 이번 조사에서 일부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물의 경우 수질소독 및 세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수준인 냉각수 100ml당 1,000마리 이상의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